

## 금속노조, 11.21 총파업으로 촛불항쟁 이어간다

### 전국노동자대회 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결의... “문재인 정부·국회에 적폐 청산·사회개혁 맡길 수 없다”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분노하고 있다. 6만 명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코앞 서울 태평로에서 재벌·노동·사법 적폐 청산을 거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최저임금 무력화에 이어 주 52시간 상한 제도무력화 등 재벌 편에 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게 총파업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11.21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태평로를 가득 메운 6만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1만 2천여 조합원들은 “노동법 전면 개정과 재벌 적폐 청산을 위해 11.21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총파업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이다”라고 선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11월 총파업 투쟁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진정한 사회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 책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결단만이 꺼져가는 촛불 항쟁의 불씨를 다시 피

울 수 있다. 11월 21일 총파업으로 사회 개혁의 디딤돌을 확실히 세우자”라고 호소했다.

신승민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만든 재벌개혁 라디오 의견 광고를 금지했다. 노조의 재벌개혁 광고가 ‘재벌을 차별’ 한다는 게 이유다. 한국 사회는 아직 재벌공화국이다”라고 분노했다.

신승민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 삶과 사회 개혁이 퇴행하고 있다. 더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을 맡길 수 없다. 금속노조가 11월 21일 총파업 선봉에 서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불렀다.

금속노조는 ‘가자 총파업’이라고 쓴 수십 개의 깃발을 앞세우고 국무총리 공관으로 행진했다. 행진을 마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기를 부르며 11.21 총파업 조직을 다짐했다.

### “노동기본권 위한 총파업, 민주노총 사회 책무다”

####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저지 기자회견...ILO 기본협약 비준 등 8대 개혁 입법 국회 처리 촉구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여야정협이체가 합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사업주 배만 불리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과 국회가 할 일은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라며 여덟 개 입법과제를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

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8대 입법 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 64시간 장시간 노동이 빈번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노동조건은 나빠진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추가 개악 저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산별교섭 제도화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 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여덟 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파인텍 노동자, 하늘 감옥에서 현장으로 가야 한다”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1년 투쟁 승리 결의대회’ ... “금속노조 투쟁으로 김세권 압박하자”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지회장 차광호)의 고공농성이 11월 11일로 1년을 맞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 대회로 서울 목동 에너지공사 굴뚝 앞에서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1주년 맞이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이 1년째 고공농성 중인 박준호, 홍기탁 조합원이 하루빨리 굴뚝에서 내려오길 기원했다.

파인텍지회 두 조합원은 복직, 노조 활동 보장, 단체협약 회복이라는 3 승계를 요구하며 굴뚝에 올랐다. 파인텍지회는 독점재벌 보수언론국정원자유한국당 해체와 노동 약법 철폐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겨울이 오기 전 가능한 한 빨리 두 조합원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뜻을 모았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고공농성은 철책 없는 감옥생활이다. 두 동지가 겨울을 다시 보내지 않도록 승리해 내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금속노조 단결과



투쟁으로 김세권이 동지들과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해야 한다. 노조는 두 동지가 내려올 길을 만들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투쟁시를 통해 “파인텍지회와 충남지부, 전국의 동지들이 지난 1년간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세권은 여전히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김세권이 삼자 합의를 이행하고 두 동지가 무사히 내려오도록 금속노조와 전국의 동지들이 함께하자. 11월 21일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노동자의 힘을 모아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보자”라고 당부했다.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고 노동자가 굴뚝에 올랐다. 스타캐미칼 408일 고공 투쟁 끝에 약속을 받아냈지만 사용자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차 지회장은 “파인텍 김세권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약법과 문제인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가 함께 투쟁해야 삶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공농성 중인 두 조합원은 전화로 연결한 발언을 통해 전국에서 모인 노조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박준호 파인텍지회 조합원은 “우리는 3 승계와 함께 노동약법 철폐, 독점재벌 해체, 헬조선 적폐세력 해체를 얘기하고 있다. 노동자를 옥죄는 약법과 재벌 하수인 적폐세력이 없어져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고공농성 중인 두 조합원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에너지공사 굴뚝 옆 도로변에 붉은 리본을 묶는 상징의식을 벌인 뒤 본대회장인 서울 태평로로 이동했다.

##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확인, 노동조합 조직화 더터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 개별조합원 제도 활용”

민주노총은 11월 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신상길 민주노총 부신본부 서부산상담소 상담실장과 유월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권리 찾기 모임 <월담> 활동가가 녹산공단과 반월 시화공단의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중

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방안으로 개별 조합원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대폭 올랐지만, 현장에서 임금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단 노동자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상여금 쪼개기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조직화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2019년 최저임금 투쟁에서 새 판을 짜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 전략조직사업 국장은 “최저임금 정착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고, 민주노총의 공단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 수립에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